



취임사 02

제18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취임사
제31대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 취임사
제29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 취임사

건축사 인터뷰 03

개개인의 일상, 그 일상의 즐거움을 건축에 담으려고 하는 건축사

광주 지역 뉴스 04-05

광주건축사회 제18대 강필서 신임회장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취임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창단 20주년 기념식 및 호남교류전 개최
광주건축사회, 제4회 이사회의 열고 신임 부회장 2인 선임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남건축사회, 제58회 정기총회 열고 신임회장에 이경일 건축사 선출
전라남도 시·군 공공건축업무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전남건축사회와 여수지역건축사회 최정필 시의원 공로패 수여

전북 지역 뉴스 08-09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58회 정기총회 및 제28·29대 회장 이취임식 성료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관내 건축사와 빈집정비사업 업무 협약식

종합뉴스 10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광주·전남대학 2024 건축도시디자인 워크샵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 4월 1일부터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조달청 이관

설계경기 11

서동거실 건립 건축 설계공모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한 장의 사진 _ 칠불사 아자방(七佛寺 亞字房)
한 편의 시 _ 벚꽃의 마음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4.04.173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전라남도건축사회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전라북도건축사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취임사



제18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존경하는 광주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강필서 건축사입니다.
먼저 지난 3년 재임기간 동안 많았던 광주 건축현안과 이슈 속에서 협회와 회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전임 정인채 회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전라남도건축사회와 분리되어 광주직할시건축사회가 창립된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7년여 동안 호남지

역의 대표 건축사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각종 건축문화 행사 및 봉사활동과 국제교류, 신문의 발행 등 모든 업적과 결과들이 역대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노고와 희생의 결과입니다.

저는 제18대 광주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맘 흘려 쏟아 놓은 업적과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협회가 축적해 온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을 잘 수립하여 회원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옳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광주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

니다. 유관단체와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광주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건축사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소리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회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회원들을 대변하며 회원들을 보호하는 협회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젊은 건축사에게는 희망을
여성 건축사에게는 권리를
선배 건축사에게는 노후를
만들어가는 협회가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취임사



제31대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
(유)원 건축사사무소

존경하는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전라남도건축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경일 건축사입니다.
먼저 저를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회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 전라남도건축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

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건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목표는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축사회가 금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겠지만 우리 협회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참여와 헌신에 달려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건축경기는 매우 힘들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볼 때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

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협회는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합시다.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협회를 위한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 모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협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전라남도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장의 책무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전남건축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취임사



제29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
(유)건축사사무소 중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29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 이성열 건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향한 여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열정과 능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를 이끌어 오신 박진만 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장해

왔으며,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공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건축사회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 영역이 어려워지고 있고 개선은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역할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므로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축사의 안녕과 더불어 상생의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를 이룩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협회장으로서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

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협회 내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우리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협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이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 협회의 발전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협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일상, 그 일상의 즐거움을 건축에 담으려고 하는 건축사

- 일상 건축사사무소 최정인 건축사와의 만남



최정인 건축사

건축문화사랑 3면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헌 소장과 나는 설계사무실에서 만난 사이로, 둘 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독립 직전 사무소에서 6년 넘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관공서 설계를 주로 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 소장과 같은 팀을 하면서 합이 잘 맞았고, 고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생각하기를, 언젠가 독립하면 1인 체제 사무소일 테고, 현상설계나 규모가 큰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협업할 경우엔 김 소장처럼 마음 맞는 친구와 같이 할텐데 회사 다니면서 미리 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설계공모를 하는데 인력, 시간, 열정 낭비가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결정권자는 따로 있고, 실무진은 디자인과 보고를 거듭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한번 설계공모를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김 소장과 다른 친구 한 명까지 셋이 의기투합해서 업무가 끝난 이후에 모여 밤도 새가며 도전했는데 운 좋게 당선됐습니다. 그 길로 나와 김 소장은 독립했고, 다른 한 친구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2012년부터 3~4년 정도 설계공모에 집중하고 나니 민간 프로젝트, 주택 설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인 없는 집을 설계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유지 관리하기 좋은, 공사비에 맞는 건물에 모든 기준을 맞추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향인 순천이나 전주 둘 중 한 군데 오면 아무래도 민간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2018년 전주에서 일상건축을 개소했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거지 궁금합니다.

일상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축의 어려운 담론을 떠나 개개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 일상을 건축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각자의 일상이 그러하듯 각자의 건축 역시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일상 건축사사무소는 우리네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소위 삶의 질을 평가하듯 이야기 되어지는 "평" 개념의 물리적인 공간의 수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요소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건축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 당신의 일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당신의 이상이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건축주 중에는 충분한 예산으로 좋은 디자인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허가방에서 쉽고 빠르게 짓는 이도 있고, 공사비가 없어서 샌드위치 패널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건축가와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예산에 맞는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적은 공사비로도 건축적으로 좋은 공간, 일상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소재나 공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축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나름의 폭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어진 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건축가가 리모델링을 할 때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행정과 제도가 적절히 대응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옛 군산세관 창고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지정문화재라 못도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계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 담당자가 사례를 가져와라, 허가권자를 만나라, 질의회신을 하라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간 건축주들도 새로 짓는 것

보다 고치는 것이 왜 더 비싸냐고 묻습니다. 결국 비용으로 귀결되는데, 기존 건물을 뜯고 고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용 요소가 늘어나는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시공사도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여유 경비를 더 잡아놓습니다. 이처럼 여러 허들이 있음에도 리모델링은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는 앞으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사무실이 있는 금암동 근처에 살았는데, 동네 모습이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건물 지붕에 비가 새니까 옥상에 비를 막는 구조물이 거의 모든 건물에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온 손님이 그걸 보고 '저것은 전주만의 특색이나 지역성이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평지붕에 비가 새서 추가로 지붕을 올려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개선할 생각은 없고 왜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가 젊어도 생각이 정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전주에서 뭔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설계사무소가 너무 적습니다.

나보다 어린 후배가 선배에게 로비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개소하자마자 로비를 하면서 공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주에 좋은 공공 건축물이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설계사무소와 발주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시민들이 좋은 공간을 누릴 기회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에서 느끼기 어려운 규모의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공공영역에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으로써 보완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게끔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일을 나눠 가집니다.

물론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이 깨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전주에서 내내 일해 왔기 때문에 지역 내 설계사무소와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간혹 공모에 접수하면 '거기 우리가 거의 다 작업해 놓은 거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연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버티면서, 2·3등 계속하면서 깨끗하게 일하고 있지만, 모르는 이들이 볼 때는 적극 로비해서 당선하는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럴 때 '로비로 당선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니까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든다는 동료 건축사도 있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잘라내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다들 소극적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잘 안 뭉치기 때문이다. 악순환을 끊을 수는 있는 건가? 못 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깊습니다.

요즘 공모를 다시 하다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공모에 투입하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데, 도전하는 모든 이들이 다들 당선될 거라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이 현상설계에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입니다. 설계공모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는 직접 심사위원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오더라도 거절했는데, 이제는 내 역량이 부족하다 싶어도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고 광주 시, 영주시 등 여러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으로 힘을 보태보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는 어떻게 되실까요.

프로젝트는 한 소장이 한두 개를 맡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면 소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1인 1 프로젝트를 담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4년 차인 친구가 작년에 (김 소장이 PM을 맡기는 했지만) 프로젝트 시작부터 납품까지의 중심을 담당했다. 디자인도 각자 소신이 있는 일이므로 그 단계부터 책임을 갖고 일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잘 챙기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성과 맞는지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을 맡기는 이유는 이들이 훗날 우리 파트너가 되거나 혹은 독립해서 사무소를 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의 인지도가 쌓여서 우리에게 설계를 맡고 맡기는 분을 만나고, 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면 둘이서만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각자 1년에 딱 한 프로젝트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진도 세부빌딩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광주 남구 대남대로 267, 5층
 Tel. 062-512-8046



대지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80-1 / 대지면적 : 1,264.00㎡ / 건축면적 : 250.59㎡ / 연면적 : 999.36㎡ / 건폐율 : 19.83%
 용적률 : 79.06%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치장벽돌 살기, THK2 익스팬드메탈, THK24 투명복층로이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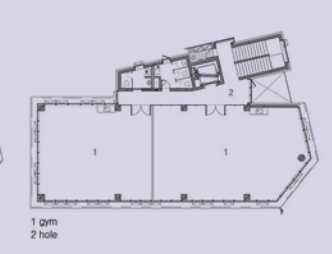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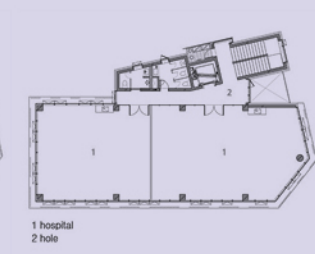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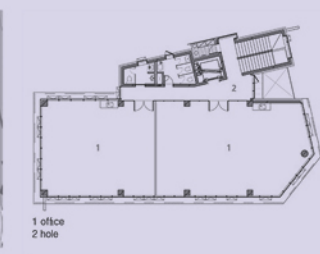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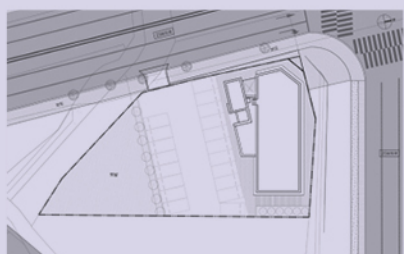


남녘의 끝자락 진도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승용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제법 먼 곳이다. 진도읍은 약 27km x 15km인 진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읍에서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진도로 가기 위한 도로에서 좌우로 엿보이는 바다를 스치듯 지나쳐가고 진도읍에 들어서서는 여느 시외지방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을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세부빌딩의 사이트가 보여진다.

세부빌딩은 시외버스터미널 대각선 건너편으로 진도읍의 신흥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에 터를 잡았다. 각각 25미터의 국도와 군도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명실상부 진도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위치이기에 작은 규모의 근린상가이지만 진도읍을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할 수 있을 거란 사명감을 가졌다.

외부재료는 심플하게 시멘트벽돌과 알루미늄 E.X. METAL을 사용하였으며, 치장벽돌은 일부분을 영롱쌍기하여 입면요소에 입체감을 주었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CREDIT UNION AWARD



조합원님들께 보답하는
 신탁이 되겠습니다.

광주건축사신탁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광주건축사회 제18대 강필서 신임회장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취임
 지난 4월 1일 광주건축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회장 직무를 시작



지난 4월 1일, 광주건축사회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된 강필서 신임회장(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이 광주 북구 광주건축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회장 직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송양석 역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회원,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강필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3년간 지역건축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사회의 회장으로서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건축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협회 운영으로 건축법제도 문제와 업역 침해로부터 회원을 보호해 주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 건축사들의 업무에 대한 협조와 여성회원들의 권리 신장, 회원업무와 관련하여 업역의 확장과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필서 신임회장은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당선 및 취임으로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회장도 겸직하게 되었으며, 이날 취임식에서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박주현 건축사(바움 건축사사무소), 김미정(A1130 건축사사무소), 심상철(이소 건축사사무소), 정명환(주)건축사사무소 지웃), 장동원(동원 건축사사무소), 김민호(너울 건축사사무소), 임태형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플랜)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신임이사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영문 건축사(이영 건축사사무소)와 김도석(미르 건축사사무소), 이남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우인), 김익희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올림)가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사 임명장을 받았다.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창단 20주년 기념식 및 호남교류전 개최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 30분... 영광스포티움 축구장에서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회장 이철)는 2004년 2월에 설립 후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6일 11시 30분에 영광스포티움 축구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호남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식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 광주축구동호회, 전남축구동호회, 강남축구동호회, 대전축구동호회 회원 등 총 46여명이 참석했다.

강필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광주건축사회 회장 취임 후 첫 행사이기에 뜻 깊고, 축구를 통해 건축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상호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더불어 서로 간의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사 축구 호남교류전은 매해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소속 축구동호회가 순번제로 소속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제4회 이사회의 열고 신임 부회장 2인 선임

각 위원회 위원장도 선임 및 4월 24일까지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중



장동원 건축사 정재한 건축사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지난 4월 15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부회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도 선임을 의결했다.

신임 제1부회장은 장동원 건축사(동원 건축사사무소)를 제2부회장은 정재한(모건아

트 건축사사무소)를 만장일치로 선임 의결했다.

또한 강필서 회장의 공약사항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편제를 개편했다. 먼저 위원회 및 소관업무를 통폐합을 통해 위원회를 줄이고 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확대하고 개최횟수를 늘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통합하고, 정책·인사·홍보를 합쳐 기획운영위원회로 통합하였다.

이와 함께 광주건축사회 12개 위원회와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1개 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의결했다.

끝으로 광주건축사회 및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는 4월 24일(수)까지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중이며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48182번을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명	담당업무	위원장	임기
윤리 (윤리+조사)	• 회원 윤리규정 위반 조사 및 회원 징계 심의에 관한사항	심상봉	1년
선거관리	• 임원선거 관리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안길전	"
건축법제	• 건축관련법령, 제도에 관한 사항	박진호	"
국제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신정철	"
기획운영 (정책+인사+홍보)	• 회원 관련 정책개발, 직원 인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이영문	"
여성	• 여성건축사의 지원 및 위상 향상에 관한 사항	박주현	"
교육	• 건축사교육연수 및 전문교육 등의 기획, 운영에 관한사항	김준철	"
청년	• 청년건축사의 사무소 운영 지원 및 업무활동 지원에 관한사항	최규선	"
예산편성	• 건축사회 예산 수립 및편성에 관한 사항	정인채	"
공공기관 대응	• 공공기관의 건축사 징계, 입찰, 인허가 등 건축 행정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장지숙	"
재난안전	• 건축물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안천수	"
편집	• 건축문화사랑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허만수	"
연금운영 (연금관리+장학)	• 연금관리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한상훈	"

광주건축사회, 제37회 정기총회 성료

지난 3월 22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22일 광주 동구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건축 김중호 국

장,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유창균 회장 및 회원 등 약 37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 1부 행사에서 지역건축문화에 관심을 갖고 광주건축사회에 발전에 기여해 해주신 건축 관계 기관 중 (전)광주시청 종합건설본부 이한국 부장, 동구청 도시계획과 임승찬 주무관, 광산구청 건축과 장하중 주무관, 광주교육청 시설팀 박경민 주무관과 지역언론인 전남일보 최권범 부장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사회 및 건축사신용협동조합 임원 임기를 만료한 이사와 감사에 대한 공로 때도 수여되었다.

2부 본식에서는 202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3건에 대한 의안 심의가 이어졌다. 2023년도 회계 수지결산(안)과 2024년 수지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원안의결되었으며,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에서는 강필서 건축사(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를 회장으로 왕성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다예)를 신임감사로 선임하였으며, 신임이사 7인과 대의원 11인(당연직 제외)을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선출했다.

끝으로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제42차 정기총회와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제18차 정기총회도 함께 진행됐다.

광주 회원동정

• 결혼

- 양주영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장인건축 / 3월 30일(토) - 자녀 결혼
- 배석순 건축사 / (주)에이알 건축사사무소 / 4월 6일(토) - 차남 결혼
- 마재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림 / 4월 20일(토) - 장남 결혼



진도청소년문화의 집 “청현재”

남효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2로22번길 30, 뉴캐슬주상복합상가 210호
 Tel. 061-283-7248

대지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31의 5필지 / 대지면적 : 5,504㎡ / 건축면적 : 424.32㎡ / 연면적 : 1,133.79㎡ / 건폐율 : 47.62%
 용적률 : 18.84%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T1.2 내진보연시스템패널, 테라코타



전남건축사회, 제58회 정기총회 열고 신입회장에 이경일 건축사 선출
 지난 3월 15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3월 15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을 비롯해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형민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건축사헌장 낭독, 개회사, 신입회원 인사소개, 공로패수상, 부의안건 채택 및 심의로 진행됐다.

특히 부의안건 의결사항으로는 회칙 개정의 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서(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예산(안)은 원안승인 되었고, 임원 선출의 건에서 회장에 이경일 건축사(유)원 건축사사무소를 회장으로 양경승 건축사(해룡 건축사사무소)를 신입감사로 선임하였으며, 이사와 대의원은 신입회장이 추천하여 선출하였다.

신임이사 4인에는 박동기(가람 건축사사무소), 최수용((유)아름 건축사사무소), 이주경(건축사사무소 샘터), 정순흥(건축사사무소 마루21)를 선출하였고, 대의원 13인에 한형민(예향 건축사사무소), 양경승(해룡 건축사사무소), 한만호(한성 건축사사무소), 정민선(巨松 건축사사무소), 정기호(가산 건축사사무소), 범 정(범 건축사사무소), 김성규(키움 건축사사무소), 황승형(건축사사무소 희림), 오조영(서영 건축사사무소), 박용묵((유)다산 건축사사무소), 박재봉(하늘 건축사사무소), 박규남(라인 건축사사무소), 최성수(건축사사무소 창) 건축사를 선임했다.

전라남도 시·군 공공건축업무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담당자에게 전문성 강화 및 최근 건축 동향정보 공유...



전라남도는 지난 5일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시·군 공공건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제도 및 정책 변화 동향을 공유하고 공공건축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했다.

교육에선 건축공간연구원의 방재성, 김숙송이 부연구위원과 양은영 연

구원이 강사로 나서 공공건축 정책과 제도, 건축기획의 이해, 설계공모 운영제도, 공공건축 사례 등 공공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강의했다.

전남도가 주최·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시·군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해 공공건축 제도를 이해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돼 매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며, 최신 공공건축 동향 정보 공유가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공공건축사업 예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매년 늘어나는 공공건축사업의 예산 절감, 부실공사 방지, 더 나아가 디자인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남건축사회와 여수지역건축사회 최정필 시의원 공로패 수여

지역 건축문화 발전 및 공공환경 조성에 기여



최정필 시의원(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라남도 건축사회와 여수지역 건축사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지난해 의정활동에서 건축행정서비스향

상과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의정 역량 발휘로 건축문화 발전과 지역 공공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2023년도 역량 있는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했다.

최정필 의원은 동료 지역구 시의원과 함께 웅천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보행 광장을 예술공원으로 추진하여 불품없던 공간을 특화된 도심 속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라남도 건축사회와 여수지역 건축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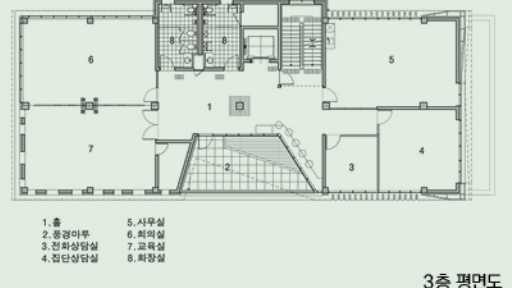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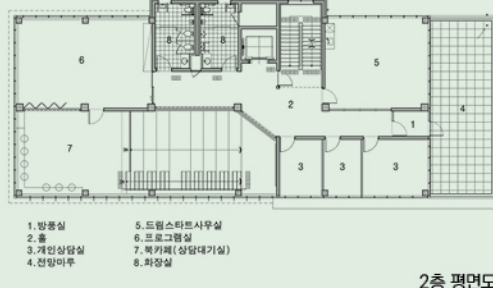
이번에 조성된 특화 공간은 장도예술공원과 예울마루로 이어지는 창의적인 공간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웅천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시립미술관과도 어우러지는 문화의 거리로써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정필 의원은 “웅천 이미지에 맞는 특화된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라며,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을 함께 해준 동료 지역구 의원과 여수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함을 만끽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심 속 공간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청현재 [청현: 푸를靑 밝을炫] 푸른 빛이 반짝거리고 환하게 비치다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진도, 향토문화회관과 무형문화재전수관 등이 모여있는 문화시설지구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청소년의 다양한 소통공간이자 자연으로 열린 청현재를 제안하고자 했다. 오픈스페이스형 계단을 활용한 북카페는 2층 프로그램실과 상담실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입체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리연습실은 공연이나 플라마켓 행사 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마당과 연계하여 계획하였다. 자연과 교감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문화와 이야기를 담아낼 청현재는 반짝거리고 환하게 빛이 나는 그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성장하고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경제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발전과 지역업체 일감 증대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선도적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총 104세대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점검 예정

전남 고흥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고흥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5층 이하, 연 면적 660㎡ 이하인 20세대 미만 9개소, 13개 동 총 104세대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안전 점검을 꼼꼼히 확인한다.

고흥군은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준공 도면 검토, 시설물 관리대상 확인, 기존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 보수 보강 이력 검토 등 보다 정밀한 절차를 통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거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라며 “지속해서 빈틈없이 군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관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월 1만원 만원주택” 2026년 건립 전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6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4개 군에는 단지별로 전담도가 50가구를 공급하고, 진도군은 자체 예산으로 10가구를 추가해 총

210가구 건립될 전망이다.

고흥과 보성은 나로우주센터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팜 관련 종사자, 순천대학교의 글로벌30 선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 전망이 선정 배경으로 꼽혔다. 진도와 신안은 최근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숫자

가 증가하고 수산업 관련 청년 귀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원주택은 학교와 보육시설, 상가 등 접근성이 높은 도심지역에 들어선다.

올해 하반기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착공,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나머지 12개 군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매년 2개 군씩 만원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각 군에 아파트 1개 동을 건축해 신혼부부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 대상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행과 시공을 맡은 전남개발공사는 7월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입주 상담, 준공 후 운영관리 등을 할 계획이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김태원 건축사 / CND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2호
 - 선유정 건축사 / 누리있다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교육길13, D동 2-309호
- 전입**
 - 김영완 건축사 / (주)천우동백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시청길 15-10
 - 김명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기관 / 전남 나주시 교육길 13, D7동 406호
- 변경(소재지)**
 - 김동인 건축사 / 김동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4길 5
 - 조원석 건축사 / 제이디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상삼2길 9-2, 1층
 - 서윤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하 / 전남 여수시 동문로 70-22, 2층
- 결혼**
 - 이창국 건축사 / 창조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3월 23일(토)
 - 김송준 건축사 / 문화아주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3월 30일(토)
 - 신재관 건축사 / (주)연희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4월 6일(토)
- 부고**
 - 오덕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오(주) / 빙모상 - 3월 5일(화)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58회 정기총회 및 제28·29대 회장 이취임식 성료 지난 3월 2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에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지난 3월 2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58회 정기총회 및 제28·2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역대 회장과 회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24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안)심의 승인의 건, 전북건축사회 회칙 개정(안) 심의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제28·29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제29대 이성열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열정과 능력으로 전라북도건축사회를 이끌어 오신 박진만 회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만큼 건축사회도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므로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건축사의 안녕과 더불어 상생의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를 이룩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임 이성열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 협회 내부 소통과 협력 강화에 회원 의견 수렴하는 정책 수립, 협회 위상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 협회 발전과 회원 이익 증진을 제시했다.

한편 이성열 신임 회장은 전주공고, 전주비전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주시·김제시·임실군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 개최

박광성 전주지역건축사회 신임회장 당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3월 20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북건축사회 박진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김남중 감사, 이길환 이사, 전주시의회 박선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총회에 부의안건으로 2023년도 수지결산(안)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2024년 회비수납

기준(안)을 상정 및 승인하고 임원 선출의 건에서 박광성 건축사(바우 건축사사무소)를 회장으로 정근양, 김종현 건축사는 감사로 선임하고 이사 12명은 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해 선출하기로 했다.

끝으로 제20대 박광성 신임회장은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회원들의 공익과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관내 건축사와 빈집정비사업 업무 협약식

빈집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 문제에 대응



전북 순창군이 지난 3일 행복누리 센터에서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해체계획서를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나 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주로 소규모 건축물로 구성된 순창군의 빈집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순창군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군민 128명이 해체계획서 검토비용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검토 비용은 건물당 약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총 7,600만원 상당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건축사는 관내에 위치한 강천 건축사사무소, 담쟁이 건축사사무소, 순창 건축사사무소, 한건 건축사사무소, 김해 건축사사무소 등 5곳이다.

최영일 군수는 “좋은 취지로 함께 해준 관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군정목표 중 하나인 복지 실현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심플레이스

홍영식 건축사 / 하늘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35, 501호 / Tel. 063-228-8225



2024년 전북건축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안내

오는 5월 11일 전북 완주 모악산관광단지 축구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는 오는 5월 11일 전북 완주모악산관광단지 축구장에서 전북 내 건축인 및 공무원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유기적인 발전과 이해증진을 위해 2024년 전북건축인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전주지역건축사회가 주최 및 주관하며 참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원, 전북특별자치도청 시·군 소속 건축직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시·군 소속 기술직공무원이다. 팀 편성은 총 4팀으로 도청·시군 연합팀, 전주·완주 연합팀, 교육청팀, 건축사팀으로 이뤄진다. 체육대회 일정은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구경기, 레크리에이션, 줄다리기, 400m 계주,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는 “전북도 건축인들의 끈끈한 우정을 재확인하고 서로의 친목과 화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홈페이지 248073번에서 참조하면 되며, 행사 식순은 아래와 같다.

시간 계획	행사 내용
08:00~09:30	축구경기(토너먼트)
09:30~10:00	개회식, 인사말(축사), 행사진행안내
10:00~10:30	축구경기(결승)
10:30~11:00	레크리에이션(가족중심)
11:00~12:00	줄다리기 / 400m계주 / 레크리에이션
12:00~12:40	행운권 추첨 및 시상식
12:40	폐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녹지지역내 개발행위 규제 완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 가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주시가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녹지지역 내 층수 완화와 공동주택 허용 등 개발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됨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침체된 지역 개발 경기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녹지지역 내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

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도시계획조례의 주 내용은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됐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가 자유로워짐으로서 지역 개발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핀 후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며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꿀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이종진 건축사 / 제이앤디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52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67
- 정완수 건축사 / 그리다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18-1
- 주규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온 / 전북 군산시 조촌2길 24

• 결혼

- 소윤섭 건축사 / 상록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4월 6일(토)

• 부고

- 정창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림 / 장모상 - 3월 16일(토)
- 강문수 건축사 / (주)울그룹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4월 1일(월)
- 김상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채움 / 장인상 - 4월 2일(화)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광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전) 광주광역시 시의회 자문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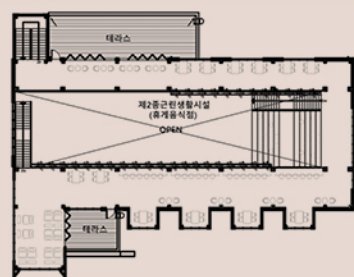
SIMPLACE는 규모 2층, 연면적 997.30㎡인 대형카페이다.

건축물 외관은 앞쪽의 넓은 잔디마당과 주변의 경관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야 확보를 위한 큰 창을 많이 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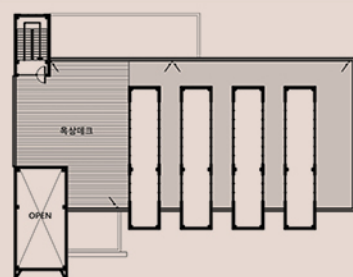
내부는 2층 중심을 보이드해 높은 층고를 확보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개방감을 느끼게 했고, 계단형 좌석, 포켓공간, 빈백공간 등 다양한 좌석공간 및 배치를 통해 생동감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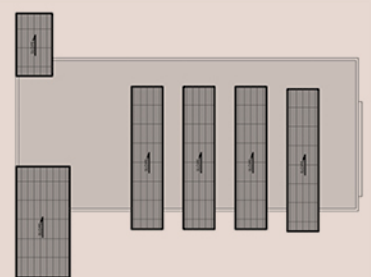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옥상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작 설계비 760억 상당 설계권 부여... 오는 6월 13일까지 작품접수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내 면세점과 보안검색대 등 총 60개 동(28만㎡) 건축물을 짓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건축사가 모두 응모 가능한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 소지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당선작은 기술전문위원회의 5개 분야(건축계획, 건축구조·시공, 여객서비스·수화물처리시스템, 공항보안, 시설배치·교통 접근)

에 대한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7인의 심사위원이 디자인 우수성,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수화물처리시스템의 효율성, BIM 적용 설계 방안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등 당선작에는 약 760억원 상당의 여객터미널의 설계권, 2등 당선작에는 약 120억원 상당의 관제탑, 통합청사 등 부대건물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한편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2030년까지 건설되며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 누리집(<http://gadeokap-comp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대학 2024 건축도시디자인 워크숍 개최

지역 건축과 도시 현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 교류



광주전남대학 연합프로젝트인 2024 건축도시디자인 워크숍 ‘리버시티(River+City)’가 지난 4일 광주대학교 호심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연합프로젝트는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이순미)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후원한다. 지역대학의 건축학 전공 학생들이 공동 주제를 공유하며 지역의 건축과 도시의 현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역에서 마련됐다.

광주대 건축학전공, 전남대 건축학부, 건축디자인학과, 호남대학 건축학부 등 3개 학교 건축학 전공학생 80여명과 교수진 및 지역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한 학기 동안 낙후된 영산강 주변과 수변공간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다양한 스케일의 건축과 도시설계 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워크숍은 각 대학을 순회하며 총 3차례 열릴 예정이며 최종결과물은 오는 10월 광주 아시아 건축대전 행사의 기획전시회 형식으로 소개했다.

한편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는 그동안 국내 학생공모전인 광주건축대전을 2024년 올해에는 일본, 중국, 인도, 태국의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인권과 건축’을 주제로 ‘광주 아시아 건축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4월 1일부터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조달청 이관

LH와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사업 배제

국토교통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 해소와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내달 1일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발생한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카르텔 허파 지시에 따른 것으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부실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이번 혁신안은 불합리한 기준 개선,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입찰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LH 및 조달청 전관업체 배제,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 방지, 심사기준 정비를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LH와 조달청 전관업체가 배제한다. LH·조달청의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되며, 이는 최근 3년 이내의 퇴직자에 한한다. 또 불합리한 심사기준이 정비돼 LH 근무 경력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던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을 20년에서 12년으로 조정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신기술 활용실적의 인정범위를 LH 선정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하여 진입 장벽을 낮췄다.

설계공모 시에는 법규·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하던 것을 개선하여,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 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한 과도한 응모 제한(6개월간 응모 자체 제한)을 감점 대상으로 변경, 불필요한 참여 제한을 완화해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업무 이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 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와 낙찰자 선정 등을 전담한다. 한편, LH는 계약 체결 이후의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원,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실제 조정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 예정...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건축 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된 사례를 모은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지난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모았으며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유형별 주요 조정 사례, 민원 상담 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 사례는 분쟁 유형별로 당사자 주장, 사실조사 결과, 위원회 판단 내용, 조정 결과,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분쟁 조정신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피해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를 다수 수록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 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p>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p> <p>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p> <p>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p> <p>편집인 허만수</p> <p>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p> <p>자문위원 박홍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p> <p>전담기자 김중문</p> <p>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p> <p>편집위원 오선화, 설혜순, 최기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정영진, 장기섭</p> <p>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p> <p>간별 월간</p> <p>등록일자 2010-01-25</p> <p>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p> <p>광고신청 T. 062)521-0026</p>	<p>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p> <p>•발전기금 : 1만 원부터</p> <p>•후원방식 : 신청 131-009-471898(예금주 : 광주건축사회)</p> <p>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p> <p>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p> <p>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p> <p>원고마감 : 매달 10일</p> <p>문의 :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6 / gjk@empas.com)</p> <p>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p> <p>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p> <p>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p>
--	---

서동거실 건립 건축 설계공모

2022년 익산시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모와 함께 주민 공동체 활동 촉진 및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생활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고도지구의 역사적 정체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한옥형 건축물로 창의적인 건축 계획안을 발굴하고자 함.

심사위원 : 윤충렬(익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박지훈(익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김승기(익산시 공공건축·공간환경 민간전문가), 김미순(익산시 공공건축·공간환경 민간전문가), 안선호(원광대), 송석기(군산대), 김상태(한국전통문화대)

- 대지위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03번지 외 4필지
- 연면적 : 1,368.14㎡
- 대지면적 : 2,790.00㎡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건축면적 : 958.31㎡
- 구 조 :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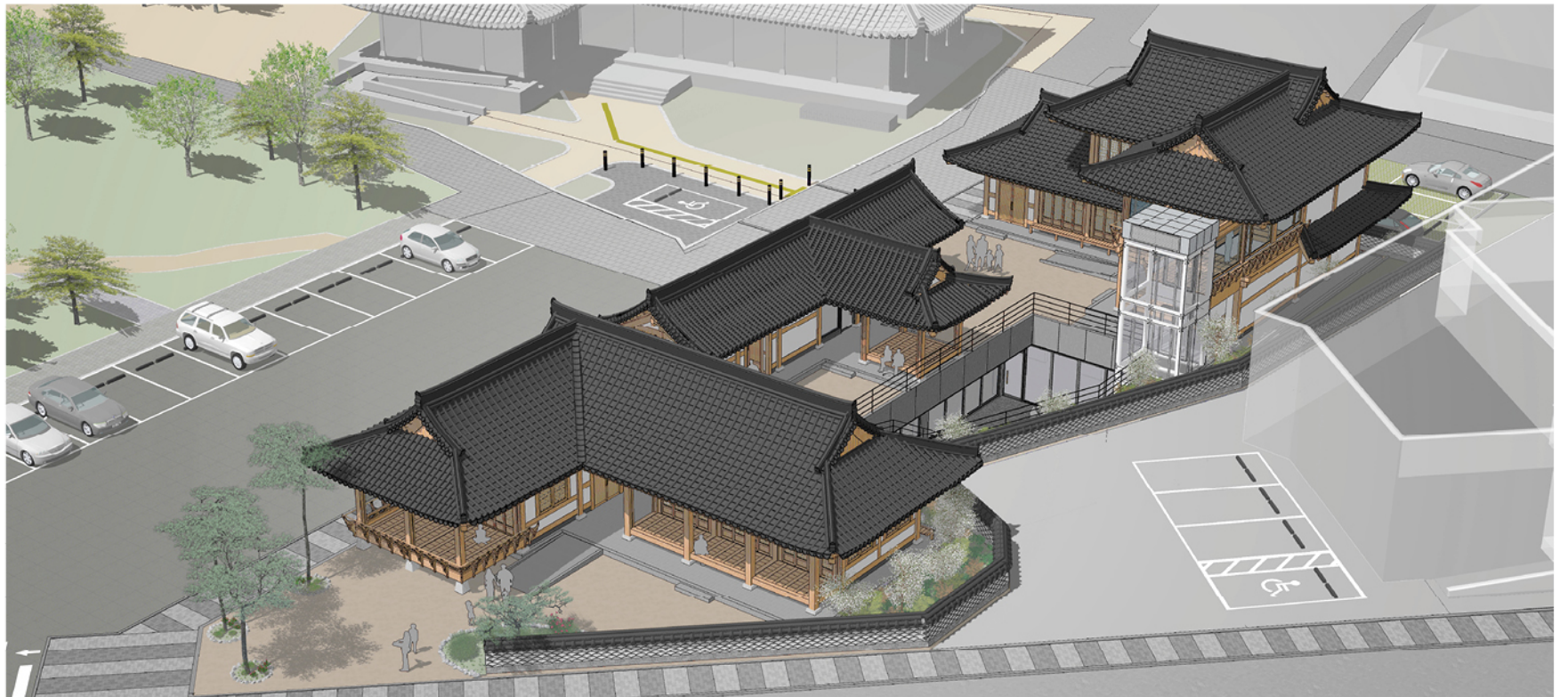
당 선 작 : (주)삼풍이엔지 종합건축사사무소
 입상작-1 : (주)두리 건축사사무소
 입상작-2 : (주)건축사사무소 이다
 입상작-3 : (주)그루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입상작-2, 3 자료 미제출

당선작

정국한 건축사 / (주)삼풍이엔지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수 건축사 / (주)두리 건축사사무소 입상작-1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WGNB 기획 / 윤형택 글·그림 / 미메시스 / 2019. 11. 25.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실내 건축을 주업으로 하는 WGNB가 클라이언트에게서 의뢰받은 프로젝트들을 다룰 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공간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공간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책에는 이야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구조물이 세워지는지 어떠한 스타일을 추구했는지 엔지니어적 디테일은 어떠한지 등은 보통 공간이 가진 이야기에서 비롯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하나의 공간이 구축되기까지를 말한다. 무엇을 위한 공간이고 왜 만드는지 그 과정에 누가 있었고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 등의 내부적 이야기를 포함한다.



책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10개이다. 처음 클라이언트에게 의뢰받았을 때부터 최종 완성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치 에세이를 읽는 것처럼 재미있게 들려준다. 안경 매장 엔드피스의 패셔너블한 인상을 위해 안경다리를 뜻하는 엔드피스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된 가구와 문손잡이들, 또한 대형 전선들을 꼬아 니팅 월을 만들어 안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고 손님은 내부를 볼 수 없는 시그니처 벽 등은 실용과 스타일 둘 다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 눈치챌 수 있다. 준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WGNB만의 픽션 콘셉트도 엿볼 수 있다. 다소 허무맹랑할 수 있는 암흑 물질이라는 소설을 먼저 만들었고 그걸 실제로 구현하여 우주에서 온 암흑 물질이 어떻게 공간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는지를 보여 준다. 그뿐 아니다. 팀원끼리 재미 삼아 했던 사다리 게임에서 공간의 힌트를 얻기도 한다. 사다리 게임의 규칙을 언타이틀닷이라는 편집 매장의 천장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다. 목차에서는 엔드피스, 준지 플래그십 스토어, 언타이틀닷 등등 이 순서로 이야기들이 시작된다.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에서는 이야기만 나오지 않는다. 하나의 이야기가 공간이 되기까지 어떤 희의들을 거쳤고, 어떤 시행착오를 했는지 또한 새로운 소재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등의 세세한 디테일에 대한 설명도 가득하다. 개성 넘치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풀어낸 과정과 섬세한 사진으로 기록한 완성된 공간의 모습은 마치 화보집을 보는 듯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건축을 전공하는 저학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여 소개해 주고 싶다. WGNB의 공간 디자인에 관심 많은 디자인 전공 학생뿐 아니라 공간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뒷이야기가 궁금한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칠불사 아자방(七佛寺 亞字房)

경상남도 하동군 / 2024년 3월 10일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림

벚꽃의 마음

봄바람 따라 춘삼월이 오니
가지마다 몽골몽골
벚꽃이 뻗혀있네

얼마나 기다렸을까
피고 싶어도 피우지 못하고
때가 이르면 우당탕 피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함구하고 있구나

하얗다 못해 붉어진 응어리
조금이라도 건들면
톡 터질듯한 벚꽃
햇빛은 짹짹한데
터질 듯 말 듯 웃음만 짓네

낮에는 부끄러워
소리 없는 웃음으로
밤 하늘 별을 바라보며
한바탕 떠들썩하게 피워야지

하나가 터지면
시샘하는 가족들 모두
온 동네 떠나갈 듯
무언의 함성으로
요란하게 피우리라.



KCMT와 SK 에코플랜트 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유지보수비용 절감(내부식성)
건축물 수명 100년 이상
저탄소 제품
철근 대비 탄소배출량 45% 저감
일반 철근 대비 자재비 절감

건축사

지구환경 보존 지대만 기여
친환경 리사이클링 자원순환
사회구성원 보호(근로자)
경량화 자재로 안전사고 예방
한국건설순환자원 학회 인증
녹색인증(국토교통부)

시공사

중대재해 ZERO(낙하, 감전)
철근 대비 1/2 중량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시공비용 절감(인건비, 장비비)
물류비 절감(철근 대비 200% 운반가능)
길이별 제작 가능(2m~12m)

근로자

근골격 질환 예방
(경량화)
작업피로도 감소
(열차단성)

설계(원가절감VE)시 기술용역료 3% 지원(경제성 무료 검토)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한국도로공사 데이터)

통영 스타벅스

함평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절곡근 적용

KECO

임대중 대표 / 국내총판
M. 010-3484-2886
T. 061-371-1233
www.kcmt.co.kr